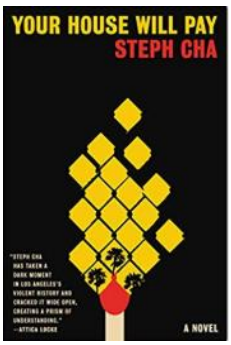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YOUR HOUSE WILL PAY
가제 : 죗값
저자 : Steph Cha
출판사: Ecco
발행일: 2019년 10월 1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도시 전체에 커다란 구멍을 남긴 한 순간의 선택, 그로 인해 한데 묶인 두 가족의 가슴 울리는 자화상을 그린 소설" – 에드가 상 수상작 『Bluebird, Bluebird』의 작가 아티카 로크
* "결합과 분리의 요소들, 가족, 지역 공동체, 국가를 날카롭게 관찰한 비범하고 깊은 감정이 담긴 이야기" – 『November Road』의 작가 루 버니

LA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도우며 살고 있는 그레이스와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사촌이 자신처럼 최대한 조용히,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려 애쓰는 숀은 같은 도시에 산다는 것 외에 공통점이 전혀 없었다. 그레이스는 부모님이 한국인 이민자이기에 늘 한인 사회에서 살아왔고, 숀 역시 흑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나고 자랐다. 20대 후반인 그레이스와 이제 40대에 접어든 숀은 같은 세대도 아니었다. 그러나 숀의 바람과는 달리 두 번 다시 교도소에는 가고 싶지 않다던 사촌 레이가 오랜 친구인 던컨과 함께 또 다시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이려는 조짐이 보이고, 결국 총격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결 고리가 없어 보였던 그레이스와 숀의 인생은 한 점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그레이스의 최대 고민은 언니 미리암이 2년 전부터 갑자기 엄마와 만나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레이스와 미리암은 꼬마 때부터 늘 붙어 다니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던, 비밀은 하나도 없는 각별한 자매였다. 미리암이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같은 방에서 지내며 크게 다툰 적도 없이 살았기에, 엄마를 대하는 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때문에 한 달이 넘게 언니 얼굴도 못 보고 지낸다는 것이 아직 그레이스에게는 낯선 일이었다. 더 이상한 점은, 엄마도 언니도 대체 왜 갑자기 서로를 멀리하며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레이스는 이유도 모른 채 두 사람이 어떻게든 화해하고 예전처럼 지내게 하려고 기회만 되면 애를 썼다. 하지만 언니에게서 느껴지는 증오에 가까운 분노는 그런 시도조차 하

기 어렵게 하는 힘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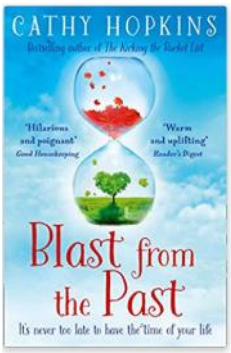
숀이 열세 살이었던 1991년, 당시 열여섯 살이던 누나 아바가 머리 뒤편에 총을 맞고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일은 숀에게 감당하기 힘든 상처로 남았다. 아바는 피아니스트를 꿈꾸며 또래 친구들이 욕설이 난무하는 랩을 들을 때 그 한 가운데서 클래식을 듣고,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얹혀 살고 있는 셰일라 이모 못지 않게 숀이 다른 10대 흑인들처럼 갱단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돌보던 바르고 착한 누나였다. 하지만 그 때는 흑인이면 무조건 폭력적이고 무모한 자들로 낙인 찍히던 시대였다. 아바 누나와 동갑인 사촌 레이 형도 실제로 갱단이었고, 인종차별이 심화될수록 무모한 행동으로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이 그런 오해를 더 부추긴 것도 사실이었다. 그저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갔던 누나는 가게 주인에게 너무나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수사도 허술하게 진행된 데다 재판에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한 가게 주인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거짓말쟁이 살인자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런 아바의 죽음은 한 해 뒤 LA 지역에서 벌어진 흑인 폭동의 거대한 불씨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27년여가 지난 2019년, 이제는 잠잠해진 줄 알았던 그 때의 혼란과 분노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다.

숀은 레이 형과 함께 갱단의 일원이었던 던컨 형이 아바 누나를 죽이고도 멀쩡히 살아온 편의점 여주인 한정자를 끈질기게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두 사람 외에도 아바 사건을 기억하는 많은 흑인들이 재판 이후 자취를 감춘 뻔뻔한 살인자를 잊지 않고 있던 와중, 마침 레이 형이 출소한 직후, 트위터에 한정자로 추정되는 중년의 한국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온다. 그 전에도 비슷한 연령대의 한국인 여성들이 한정자로 오인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숀은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레이 형과 친구들은 '이본'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개명하고 약국을 운영하는 그 여성이 한정자가 맞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뿐 아니라, 아바를 총으로 쏴 죽이고, 욕 한 마디도 하지 않던 아바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그저 힘없는 피해자였을 뿐이라고 흐느끼던 여자, 그 연기력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편의점 주인이 바로 그레이스의 엄마였다.

태어나기 한 해 전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건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그레이스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난 낯선 흑인이 쏜 총에 맞고 나서야 언니가 엄마와 연을 끊은 이유를 알게 된다. 소설은 두 시대와 그레이스, 숀의 시선을 교차해 따라가며 차별과 폭력, 공포로 얼룩졌던 1990년대 초의 팽팽했던 긴장과 아픈 상처가 30여 년이 지나 다른 시대, 다른 세대까지 얼마나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화려한 도시 불빛 뒤에 숨겨진 위선과 폭력의 역사를 해부하면서도 그 부당함과 상처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품위를 그리며 인종과 계급, 양심의 가치, 영원히 묻힐 수 없는 기억과 화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인상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스테프 차(Steph Cha)는 3부작 범죄 소설 『Juniper Song』을 쓴 작가다. 「LA 타임스」 도서 리뷰어, 「로스앤젤리스 리뷰 오브 북스」 편집자로도 활동해 왔다. 현재 LA에서 살고 있다.



제목 : BLAST FROM THE PAST
가제 : 과거에서 불어온 바람
저자 : Cathy Hopkins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9년 2월 21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로맨스

* "작가의 따뜻하고 정다운 유머가 환하게 빛을 발하는 이야기. 정말 즐겁게 읽었다." - 『A Grand Old Time』의 작가 주디 레이
* "포근하고, 웃기고, 기분 좋아지는 책" - 「리더스 다이제스트」

50세 생일을 맞은 동갑내기 세 친구가 인도로 여행을 떠난다. 중학교 입학 첫 날부터 단짝이 되어 40여 년을 꼭 붙어 다닌 베아와 마시아, 피트는 몇 개월 동안 준비한 여행길에 올라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쌓는다. 세 사람은 여행 출발 전, 생일 선물은 몰래 준비해 두었다가 여행 마지막 날 아침에 공개하기로 약속한다. 큰 사고 없이 즐겁게 여행을 마치고 인도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자이푸르의 아름다운 호텔 테라스에서 아침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준비한 선물을 꺼낸다. 아유르베다 마사지를 예약해둔 피트의 센스 넘치는 선물에 이어 베아도 고심해서 준비한 선물을 사랑하는 두 친구에게 건넨다. 여행 중에 인도 어딘가에서 구입해둔 최고급 실크를 자이푸르에서 발견한 솜씨 좋은 재봉사에게 맡겨서 만든 멋진 가운이었다. 한바탕 칭찬과 감사 인사가 오간 뒤 마시아는 회심의 미소를 띠며 자신의 선물을 공개한다. 마시아가 건넨 봉투를 열어본 베아는 '사란냐 지와의 대화'라는 알 수 없는 문구 하나를 발견한다. 의아해하는 베아와 피트에게 마시아는 사란냐 지가 인도 최고의 영매라는 설명과 함께 만나본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할 만큼 예리하다고 이야기한다. 사실 베아는 점성술이나 운세 같은 것엔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았다. 마시아는 예전부터 그런 쪽에 심취해서 늘 용하다는 점술가를 찾아다녔으니 딱 마시아다운 선물이었다. 난감해하는 베아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마시아는 기분 좋게 웃으며 억지로 갈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베아는 너무나 행복했던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친구를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찾아간 사란냐 지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다.
베아에게 깊은 슬픔이 느껴진다는 말로 운을 뗀 사란냐 지는 그 슬픔이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지금 단 한 명의 진짜 사랑이 베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지난 생애에서 베아는 드레스를 만드는 그레이스 해리스라는 여성이었고 빌리 잭슨이라는 남자와 깊이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했지만 빌리는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너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그 때 받은 충격과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베아는 이번 생애에서는 굳이 평생을 함께 할 짝이 필요하냐는 회의적인 마음으로 살게 됐다는 것이다. 사란냐 지는 빌리 잭슨도 어딘가에 환생해서 살고 있으며, 베아가 그를 알아보기만 하면 된다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긴

다. 평소 같으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웃어 넘길만한 이야기였지만, 베아는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인다. 이제 나이가 쉰인데 평생의 사랑을 만날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피트와 마시아까지 곁에서 계속 부추기자 베아는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 찾아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후, 베아가 운영하는 자그마한 가게가 자꾸 불어난 빚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면서 '소울메이트 찾기'는 생각처럼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액세서리를 다른 곳에서 사오거나 직접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베아의 가게는 단골도 많고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들과는 색다른 매력 때문에 안목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판매가 영 부진해서 임대료도 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오랫동안 가게의 회계사로 일해온 스튜어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베아는 빚을 내서라도 일단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고 어떻게든 가게를 지키려고 애쓴다. 그런데 베아의 이런 힘든 사정을 잘 아는 듯한 누군가가 익명으로 선물을 보내기 시작한다. 사란냐 지의 말처럼 정말 베아가 자신을 알아보기만을 기다리는 사랑이 있다는 의미일까? 마시아와 피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베아는 후보군을 좁혀간다. 대학 시절, 피트가 맨체스터에서 문을 연 작은 카페에서 만나 연애했던 음악가 마이클도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다. 예술에 빠진 사람들은 불안정하다며 친구들, 가족들 모두 경고했지만 베아는 마이클의 자유롭고 특별한 감성을 깊이 사랑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인도로 여행을 다녀온 마이클은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쳤다며 베아에게도 이별을 고했다. 그런데 최근, 신기하게도 옛 친구를 통해 마이클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간직하고 있던 그가 다시 시작해보자는 의미로 선물을 보냈을까? 한편 마흔 즈음에 만나 5년을 연애하고 그 중 4년은 동거를 했던 리처드 역시 강력한 후보였다. 변호사인 리처드는 예의 바르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베아가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이나 기분대로 쇼핑하는 습관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 가치관의 차이는 큰 균열이 되어 헤어지고 말았다. 소설은 베아의 지난 연애사를 추적하면서 그리 쉽게 예측할 수 없도록 미묘한 단서를 던지며 계속해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변곡점들을 현실적으로 풀어내며 사랑과 우정의 변하지 않는 가치를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시 홉킨스(Cathy Hopkins)는 현재 바스에서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The Kicking The Bucket List』, 『Dancing Over The Hill』 등이 있다.

제목 : MURMUR
가제 : 중얼거림
저자 : Will Eaves
출판사: Canongate(UK) / Bellevue Literary Press(US)
발행일: 2019년 5월 2일 / 2019년 4월 9일
분량 : 184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웰컴 도서상(Wellcome Book Prize) 우승작, 골드 스미스 상, 제임스 테이트 블랙 상, BBC 단편소설 상 결승 후보 / 가디언, 타임지 리터러리 서플먼트 '올해의 책'
* "첫 페이지부터 마음을 움켜쥐고 반으로 완전히 갈라놓은 다음, 마지막에 가면 희한하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간과 인간의 무한한 회복 능력에 관한 믿음을 되살려 놓는 소설" - 웰컴 도서상 심사위원장 엘리프 샤팍(Elif Shafak)
* "모욕과 품위, 절망과 용기 사이의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깊이 있고 현명하게 그린 이야기" - 소설가 겸 시인 앤 마이클스(Anne Michaels)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베네딕트 컴버베치가 연기한 영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의 안타까운 삶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MURMUR는 2차 대전에서 나치가 개발한 암호를 해독하여 영국군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끈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범죄자'가 된 튜링의 이야기를 한 편의 새로운 소설로 재구성하여 우리에게 들려준다. 앨런 튜링을 모델로 한 주인공 알렉 프라이어가 비상한 두뇌와 수학적인 능력을 인정받고도 치욕스러운 판결을 받고 몸과 정신이 강제적인 약물 치료로 인해 점점 무너져가는 과정을 총 세 장에 걸쳐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알렉이 일기로 꼼꼼히 기록한 내밀한 생각과 감정, 그가 절친한 친구와 주고 받은 편지, 그리고 알렉과 심리 치료사와의 대화와 토론, 상호작용 등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알렉이 부당하게 감내해야 했던 '합법적' 조치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따라간다.
알렉 프라이어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은 징역 1년 또는 1년간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이었다. '다른 남성과의 중대한 외설 행위'를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 2차 대전에서 영국군을 위해 헌신하고 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로봇과 기계 기술, 인공지능에 관해 열정적으로 연구해온 알렉은 논문 하나를 탈고한 뒤 머리도 식힐 겸 가까운 박람회장으로 향한다. 책상 앞에 매어 있었던 시간들을 털고 기분전환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돌아다가 시릴이라는 청년을 만난 것도 그곳이었다. 허기지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알렉은 시릴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밤이 어두워 박람회가 끝나자 두 사람은 자연스레 알렉의 집으로 향하게 된다. 가난에 찌들었지만 어릴 때 수학을 꽤 좋아했다는 시릴과 제법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하룻밤을 함께 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다음 날 지갑에 있던 돈이 털린 사실을 알렉이 안 순간부터 일은 꼬이기 시작한다. 알렉이 유명한 학자이고 대학 교수라는 사실을 들은 시릴의 친구가 집을 무단침입해서 돈을 훔쳐

간 것이다. 해군 출신에 정해진 직업 없이 전전하던 덩치 큰 깡패였다. 시릴 역시 저명한 학자가 자신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털어 놓고 하룻밤 같이 자고 싶어서 이리저리 유혹했던 것에 이상하게 우쭐해져, 그 날의 일을 계속 돈을 뜯어내기 위한 좋은 무기로 활용할 조짐이 역력했다. 질려버린 알렉은 경찰에 가택침입이 일어났다고 신고를 했고,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지며 알렉이 시릴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도 물론 함께 공개된다.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리석게 대처할 수 있느냐고 알렉의 형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알렉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시릴과 그의 친구의 협박에 힘없이 시달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성애를 법으로 처단할 수 있었던 영국에서 그의 고집스러운 선택이 남긴 것은 화학적 거세와 심리 치료였다.
알렉은 1년간 주기적으로 맞도록 되어 있는 호르몬 주사가 자신의 몸과 정신, 의식에 일으키는 거대한 변화를 일기처럼 기록하기 시작한다. 그의 심리 상담가로 지명된 스톨브룩 박사는 다행히 동성애자에게 치료나 '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영민하고 명석한 알렉에게 글을 쓰면 어차피 견뎌야 하는 시간을 조금 쉽게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의사의 충고를 받아들인 알렉은 합성 에스트로겐이 몸 속에 흘러 들어오면서 난생 처음 겪는 의식의 변화를 제 3자처럼 면밀히 관찰하면서 꿈인지, 환상인지 구분하기 힘든 몽롱하고 흐릿한 머릿속의 생각들을 글로 옮긴다. 사냥과 채집으로 먹고 살았던 원시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기계가 인간의 물리적인 기능을 넘어 의식까지 대체하는 미래가 올지도 모른다는 예견까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없이 흘러가는 알렉의 혼란스러운 의식은 지나온 세월 동안 알렉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둔 사람들에 관한 기억과도 이어진다. 학창시절에 알렉이 진심으로,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했던 동급생 크리스토퍼와 보낸 시간들부터 그가 폐결핵에 걸려 죽었다는 것을 알게됐을 때 느낀 절망감까지, 신기하게도 약물이 억제하는 특정한 감정과 사고는 의식의 다른 곳에 깊이 묻혀 있었던 다른 생각과 감정을 일깨우고 알렉은 일기와 더불어 친구 준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그 변화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2차 대전 당시 알렉과 함께 영국군의 암호 해독 작전에 투입됐던 준은 알렉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는 유일한 친구였다. 결혼까지 할 뻔했을 만큼 알렉을 아끼는 준은 그가 경험하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날이 갈수록 확장되는 그의 꿈 이야기들에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응원한다. 저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무너지는 몸을 마음대로 일으킬 수 없듯이, 인간의 의식 또한 가장 신비롭고 방대하지만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알렉의 이야기와 함께 가장 내밀한 자신의 생각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기계 시대에 인간의 의식이 맞이할 변화를 고민하게 하는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질문을 제시하며 인간이 자신과 세상에게 던지는 순수한 호기심을 탐구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윌 이브스(Will Eaves)는 시인이자 소설가다. 타임즈 리터러리 서플먼트(Times Literary Supplement) 예술 부문 편집자 출신으로 현재 워릭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팟캐스트 'The Neuromantics'의 공동 진행자를 맡고 있다.

제목 : MILK FED
가제 : 엄마 디톡스
저자 : Melissa Broder
출판사: Scribner
발행일: 2021년
분량 : 295 페이지
장르 : 여성 소설

*** 식이 장애에 시달리는 젊은 유태인 여성을 통해 엄마라는 존재와 거울, 신비주의, 젖과 꿀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독특한 소설**

*** "벼랑에 몰린 여성들을 위한 현대판 신화" - 저자의 데뷔 소설 『THE PISCES』에 대한 뉴욕타임스 서평**

위스콘신에서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뒤 스탠딩 코미디언이 되려고 LA로 온 레이첼은 고등학교 때부터 심각했던 거식증에 계속해서 시달린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입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하고, 다른 선택을 한다면 칼로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재빨리 생각해보고, 본의 아니게 음식을 억지로 더 먹게 될 경우에 이중, 삼중으로 대비하는 동시에 직장 동료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는 머릿속에서 얼마나 복잡한 고민과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생활은 이제 삶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LA에 이사온 직후 새로 만난 심리상담가는 이전에 상담했던 무성의하고 의욕 없는 전문가들과 달리 날카로운 눈으로 레이첼의 진짜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해주려고 노력한다. 레이첼이 음식을 비정상적으로 좋아하고 기회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싶은 욕구와 매순간 싸워야 하는 이유, 그래서 거식증의 경계를 늘 넘나들며 살아야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대여섯 살도 채 안 된 어린 시절부터 몸매 관리를 강조했던 엄마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담가는 바로 알아챈 것이다. 부정할 수 없는 지적과 마주한 레이첼은 의사의 권유대로 90일간의 '엄마 디톡스'를 시도해보기로 한다. 엄마가 자신의 식생활은 물론 삶 전체에 얼마나 큰 압력을 행사해 왔는지 레이첼이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게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헤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90일 동안 엄마와 일체 연락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감정적이고 마음이 약한 자신을 잘 알기에 3일이면 죄책감 때문에 포기하게 될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이겨내자고 다짐한 레이첼은 엄마가 쉴 새 없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외면하고 의사의 말대로 자기 자신을 엄마처럼 돌보기로 결심한다. 가장 간절히 바라지만 바라는 대로, 또는 바라는 만큼 주어지지 않는 엄마의 사랑, 엄마의 자궁 속에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엄마 몸의 한 부분으로 9개월을 살았지만 이렇게 남처럼, 남보다 더 한 상처를 서로에게 입힐 수 있는 관계, 엄마란 어떤 존재일까?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레이첼은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대와 뜨거운 사랑에 빠진다. 엄마처럼 자신을 보듬어주려는 푸근한 아줌마였다. 칼로리 걱정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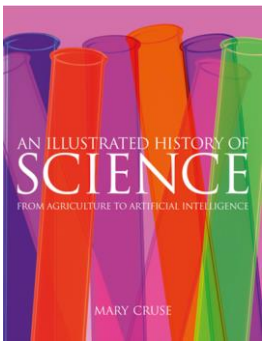
류나 양에 제약이 너무 많은 레이첼에게는 한 끼 한 끼를 마치 의식을 치르듯 한 치의 빈틈이나 낭비 없이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회사 사람들과 억지로 점심을 같이 먹어야 하는 일이 없을 때 레이첼의 점심은 서브웨이 샐러드와 바로 옆에 있는 요거트 가게에서 파는 다이어트 요거트 한 통으로 마무리되곤 했다. 미리암은 레이첼이 늘 행복한 꿈을 꾸는 기분으로 설레며 찾아가는 그 요거트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였다. 엄마가 봤다면 기겁할 만큼 살집이 많은 퉁퉁한 몸매에 개혁파 유대교인 조부모님 밑에서 자란 레이첼과 달리 정통파 유대인인 미리암은 레이첼에게 더 맛있는 요거트를 더 많이 먹이고 싶어 어쩔 줄을 모르고 레이첼은 그런 미리암이 어쩌면 자신이 여태 누구에게도 얻지 못한 사랑을 채워줄 존재인지도 모른다고 확신한다. 레이첼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할머니와 친척들이 둘러앉아 정통 유대인 요리를 오랫동안 즐기던 시간들로 채워져 있지만 엄마는 남들보다 뚱뚱한 할머니와 친척들을 부끄러워했다.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부터 옷을 사러 가면 이웃집의 더 마른 여자아이를 가리키며 비교했고, 아침부터 밤까지 레이첼이 뭘 먹어야 하고 뭘 먹지 말아야 했는지 잔소리하고 감시했다. 그렇게 음식과, 그리고 엄마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란 레이첼의 텅 빈 마음을 미리암이 따뜻한 손길로 채워주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미리암을 향한 레이첼의 애정은 채워지지 않는 식욕처럼 아무리 받아도, 아무리 쏟아 부어도 충족되지 않고 레이첼의 성적인 집착은 둘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든다.

작가는 마땅히 받았어야 할 사랑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먹어야 할 음식을 빼앗겨 몸과 마음이 거대한 결핍에 시달리는 레이첼이 어떻게든 인생을 바로 잡아보려 애쓰는 과정을 식이 장애와 외모에 집착하는 사회, 모녀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통해 보여준다. 다소 무거운 소재와 달리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레이첼의 위트 있고 솔직한 음성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 소설에서, 작가는 한 인간을 만들어낸 부모라는 존재가 자식에게 주거나 주지 않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영양'은 무엇인지,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개개인이 자신의 '부모' 혹은 '자녀'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있게 파고든다. 90일간 엄마와 연락을 끊고 사는 동안 미리암과의 격정적인 사랑과 더불어 회사에서 또 다른 엄마처럼 자신을 챙기고 아껴준 동료가 뒤통수를 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레이첼은 이 두 여성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왜 그런 갈망을 품게 되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다. 한 인간에게 모든 의미에서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존재들의 영향을 독창적으로 해석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멜리사 브로더(Melissa Broder)는 5개국어로 번역된 소설『THE PISCES』와 현재 팔로워 수 80만 명이 넘는 트위터 계정에 쓴 글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 모음집 『SO SAD TODAY』, 네 편의 시집을 펴낸 작가다. 「뉴욕타임스」, 엘르 닷컴, 「보그 이탈리아」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NON-FICTION



제목: AN ILLUSTRATED HISTORY OF SCIENCE
가제: 일러스트로 보는 과학사
저자: Mary Cruse
출판사: Arcturus
발행일: 2019년 10월 15일
분량: 256 페이지
장르: 역사 / 과학

*** 농기구의 발전부터 철학의 형성, 인공지능의 탄생까지 제한된 관점에서 벗어나 컬러 사진, 일러스트 자료, 연대표와 함께 정리한 과학사**

과학의 역사가 생각보다 다양한 범위로 정리될 수 있는 이유는 '과학'의 정의가 시대마다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의미에서 과학의 역사란 인류가 과학적인 이론과 원리, 지식을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 연구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그러한 구성 요소가 등장한 배경, 목적, 그 목적에 관한 사람들의 이해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알 수 있다. 고대 자연철학, 중세 시대의 연금술, 르네상스 시대의 학문과 계몽운동이 한창이던 시대에 이루어진 개혁까지, 과학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란 누구인지 유동적인 관점으로 봐야 진짜 과학사를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방대하고 각종 분야를 넘나드는 탓에 과학사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의 역사가 결코 정적이지 않다는 것, 끊임없이 변화했고 발전해왔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다. 저자는 이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과학' 하면 거품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시험관이나 새하얀 실험실 가운을 걸치고 서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만 떠올리게 만든 현대 과학의 한정된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대부터 현대까지 과학이 걸어온 길로 안내한다. 농기구의 발달, 날씨 패턴을 알아내려는 연구, 지도 제작, 수학과 현대 지리학의 등장에서 출발하여 유전공학, 인공지능,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사업 등 21세기를 대표하는 최첨단 과학과 아직 구체적인 형체가 잡히지 않았지만 분명 미래의 과학으로 역사의 한 부분이 될 발전까지 두루 살펴본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쉼 없이 탐구하는 열정은 인간의 DNA에 각인된 본연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과학의 역사는 곧 인간이 기울여온 노력의 역사이고 세상의 진실과 의미를 찾아내기 위한 애쓰는 과정에서 얻은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과학사가 발명품과 기술의 개발 과정과 유용성에만 국한될 수 없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과학의 역사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이고, 화려하고 놀라운 성과와 더불어 잘못된 판단과 실수, 좌절의 시간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저자는 물리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등 세부적으로는 총 17개 분야를 포괄하며 인간의 호기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왔고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여준다. 정처없이 돌아다니던 유목민 집단을 한데 묶어 한 곳에 정착시킨 과학의 힘과 함께 원시 시대에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동굴 벽에 열심히 그리고 분석하던 열정은 오늘날 유전체를 분석하고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고 거대한 입자 충돌기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입자 단위까지 물질을 부수는 열정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은 모두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궁금한 것은 반드시 해결하려고 애썼던 인류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며, 지금도 우리 모두가 거대한 과학사의 한 페이지를 열심히 쓰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다채로운 시각 자료와 함께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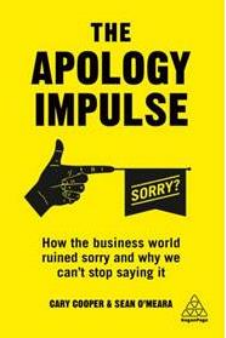
<목차>

서문 / 머리말
1부: 고대사 BC. 3000-5세기
  1장. 수학
  2장. 의학
  3장. 철학
2부: 그리스로마 시대 이후 5-15세기
  4장. 지리학
  5장. 광학
  6장. 식물학
3부. 근대 초기 15-18세기
  7장. 해부학
  8장. 천문학
  9장. 화학
4부: 19세기 (10-12장)
5부: 20세기와 21세기 (13-16장)
6부: 과학의 미래 (17장)
결론

<저자 소개>

메리 크루스(Mary Cruse)는 입자가속기 홍보 담당자로 일하다가 현재는 작가, 기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 중이다. 「Oxford Mail」 칼럼니스트, 「Diamond」 매거진 편집자, 영국 과학기술 시설위원회, 웰컴 트러스트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제목 : THE APOLOGY IMPULSE
가제 : 마음을 움직이는 사과
저자 : Sir Cary Cooper, Sean O'Meara
출판사: Kogan Page
발행일: 2019년 10월 29일
분량 : 344 페이지
장르 : 경제, 경영



***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 입으로만 하는 사과가 만연한 현대 기업들의 무신경한 행태를 꼬집고 기업과 사업 전반에 사과가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책**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등장하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잘못을 저지른 기업의 대표나 정치인이 카메라 앞에 나와 사과를 할 때 '저 정도면 됐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라는 마음이 자연스레 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누가 봐도 영혼 없는 사과,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말뿐인 사과가 사건 자체보다 훨씬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더 많을 정도다. 전혀 미안하지 않지만 하도 사과하라고 난리 법석이라 '해 준다'는 식의 태도를 별로 숨기지 않는 기업인, 정치인, 대형 단체와 조직 대표들의 이 무신경하고 무성의한 사과는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다들 비상한 두뇌로 홍보 전략만 연구하는 직원들을 여럿 두고 있을 텐데, 왜 더 큰 공분을 불러 일으킬 것이 뻔한 껍데기뿐인 사과를 할까? 무작정 사과부터 하는 세상, 그리고 어지간한 사과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느끼는 대중, 이 책은 위기에 처한 사과의 현실을 속속들이 파헤친다. 두 저자는 PR과 소셜미디어를 관리하는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부적절한 타이밍에 부적절한 표현으로 이루어진 이상한 사과를 내놓고, 다른 한 편에서는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을 저지르고도 한참 지나서, 과도하게 늦게 아주 짤막한 사과를 내놓는 바람에 더 큰 비난을 사는 이 불균형적인 실태를 요모조모 분석한다. 더불어 무엇에나 쉽게 화를 내고 단체 행동을 일으키려는 '분노 문화'와 무작정 요구부터 하는 태도가 당연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잘못 해석하고 활용한 사과 당사자들의 전략과 기술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설명한다. 사과의 심리학적인 요소와 동기, 경제적인 영향을 세밀하게 밝히는 동시에,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진정한 사과'의 방법을 처음부터 설명한다.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두 저자는 단언한다. 성경과 코란은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종교와 인간의 윤리, 도덕을 다룬 자료에는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전문적인 학술 문서로도 사과를 통해 상대방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수백, 수천 건 발표되었을 정도니 기업이나 정치인,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두 저자의 결론이다. 사소한 실수부터 중대한 과실에 이르기까지, 분명 사과를 해야 마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소비자와 대중은 성실한 책임을 요구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대상은 타이밍 면에서나 표현에서

그 책임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사과를 내놓거나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한다. 2018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널리 알려진 조직과 개인의 공개 사과가 35건 발표됐고, 2017년에는 페이스북, 메르세데스 벤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등 굵직한 기업에서 무려 2,000 마디가 넘는 '사과 표현'을 내놓았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 '죄송하다(sorry)'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었다. 두 저자는 정말 별 것 아닌 일에도 올바른 시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짜 사과'와 '사과 회피'가 만연한 현실을 진단하는 한편 너무 계획하고 단계별로 고민한 사과가 오히려 비즈니스와 회사를 믿었던 고객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반대로 정말 큰 고비가 될 수 있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제대로 된 사과로 새롭게 신뢰를 구축하는 기회를 얻고 전보다 더 큰 관심을 얻을 수도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적당한 사과, 올바른 사과의 기술을 다각도로 분석한 유익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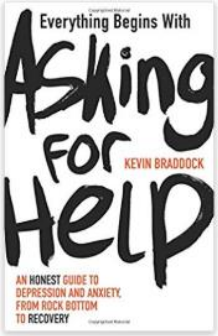
<목차>

1. 머리말
2. 사과하는 사람들, 그들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3. 기업과 단체가 사과하는 6가지 이유와 사과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
4. 문화와 가치, 소비자 경험: 산업 분야마다 '죄송합니다'의 의미가 다른 이유
5. 현대 사회의 확정적인 사과와 다들 그 말을 무시하는 이유
6. 전부 다 미안하다고 하면 미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왜 이렇게 과하게 사과를 할까
7. 죄송하다는 말을 쏙 빼고 사과하는 전문가들: '활주로 이탈 사고', '승객 재배치', '압력 초과'
8. 슈뢰딩거의 사과, 문법적인 꼼수와 회피
9. 위기에 대한 피로감, 할당된 사과
10.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CEO가 사과를 하고도 그 효과를 망친 사례
11. 계속 노력하라: 세계 최대 브랜드 세 곳이 세 번에 걸쳐 사과하려고 애쓴 사연
12.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회복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
(이하 생략, 총 23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캐리 쿠퍼 경(Sir Cary Cooper)은 개인 계발 공인 협회(CIPD) 대표이자 랭커스터 대학교, 맨체스터 대학교 조직 심리학 교수를 맡고 있다.

션 오메라(Sean O'Meara)는 컨텐츠, 홍보 업체 '에센셜 콘텐츠'의 창립자다. BBC, 코업 뱅크 등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



제목 : EVERYTHING BEGINS WITH ASKING FOR HELP
가제 : 우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저자 : Kevin Braddock
출판사: Kyle Books
발행일: 2019년 5월 16월
분량 : 21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진솔하고 공감이 가는 책. 모두 읽어봐야 한다." - 「에스콰이어」 매거진**
*** 가장 흔한 두 가지 정신 질환인 우울증과 불안의 시작과 영향, 회복 방법을 저자가 직접 겪은 과정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소개한 책**

직접 앓지 않더라도, 주변에 우울증과 공황장애처럼 심각한 불안에 시달리는 가족이나 지인이 최소 한 명은 있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다. 조금 힘들어 보여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던 동료나 같은 회사 직원이 우울증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친구 혹은 친구의 친구가 우울증으로 일상 생활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멀쩡해 보였던 누군가가 벌써 수 개월, 수 년째 심리 치료나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유명 연예인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도 잊을 만하면 들려올 정도다. 통계적인 수치도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을 뒷받침한다. 영국에서는 전체 인구 네 명 중 한 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45세 미국 인구의 주된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자살로 집계됐다. 미국에서는 2000년 이후 평균 자살률이 18 퍼센트까지 증가했고, 최근 「이코노미스트」 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의 젊은 여성들, 러시아의 중년 남성들, 그리고 전 세계 노년층의 자살 비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이 직접 겪지 않는 이상 우울증과 불안이 한 사람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 문제는 이만큼 확산됐지만 정작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문제가 의도치 않게 더 커지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20년 이상 유명 잡지와 간행물에서 편집자, 작가로 일하다가 우울증을 겪고 마침내 회복되기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낸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환자는 물론 주위 누군가의 문제일 수 있는 우울증과 불안의 모든 것을 이 책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인생이 바닥을 쳤다는 기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기가 왔을 때, 혹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부터 다시 두 발로 일어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의 관점에서 무수한 현대인을 잠식한 정신건강 문제를 분석하고 저자가 다양한 의학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한 회복 방안을 소개한다. 정신 건강의 심각성에 관한 인식이 한창 강화되는 현 시점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질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강조한 의미 있는 책이다.
독일에서 유명 잡지의 기자로 활동하던 당시, 저자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경제적으로나 직업적인 측면에서 꽤 큰 성공을 거두며 만족스럽게 지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대로 영원할 것 같았던 화려한 생활을 모두 한꺼번에, 갑자기 다 중단해야만 하는 일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우울증에 걸린 것이다. 저자는 그 때 친구들에게 용기 내어 도움을 청했고,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뻗어 잡아달라고 이야기했던 선택이 아주 길고 험난했지만 분명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던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전한다. 이 책은 실질적이고 유용한 회복의 팁과 더불어 저자의 이야기 속에 담긴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관한 여과 없는 통찰이 큰 빛을 발한다. 끝도 없는 나락에 떨어지는 자신을 붙들어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우고, 몸과 마음, 정신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되찾은 건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과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되새겼던 그 모든 과정이 저자의 경험과 함께 제시된다. 지금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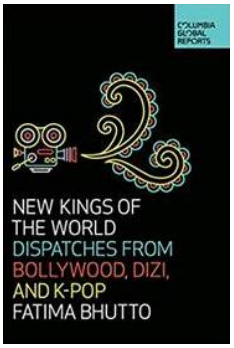
<목차>

고통 받는 모든 분들께
1부. 바닥을 치다
 1장.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
 2장. 목소리
 3장. 신체 I
 4장. 마음
2부. 회복
 5장. 배우기, 듣기
 6장. 신체 II
 7장. 맨 정신 (이하 생략, 총 10장까지)
3부. 정신 건강 (11-12장)
맺음말: 감사하기

<저자 소개>

케빈 브래독(Kevin Braddock)은 20년간 「GQ」, 「에스콰이어」, 「가디언」, 「보그」 등에서 편집자, 작가로 일했다. 이후 심리상담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7년부터 「Torchlight」라는 잡지를 자가 출판하기 시작했다. 해당 잡지는 현재까지 1,500부 이상 판매됐으며 「옵저버」 지 등에 소개됐다.

제목 : NEW KINGS OF THE WORLD
가제 : 글로벌 사우스: 신흥 문화 강국들
저자 : Fatima Bhutto
출판사: Columbia Global Reports
발행일: 2019년 9월 24일
분량 : 206 페이지
장르 : 대중문화



*** 볼리우드 영화를 중심으로 터키 드라마, 한국의 K-POP로 대표되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불고 있는 새로운 대중문화의 흐름을 분석한 책**

한 때 '제 3세계'로 불렸던 나라들이 최근 수 년간 '글로벌 사우스(The Global South)'로 통칭되고 있다. 미국과 그 우방국을 제 1세계로, 소비에트와 그 우방국을 제 2세계로 구분하고 나머지 국가들을 제 3세계로 부르던 과거의 분류나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으로 나누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반영된 이 또 하나의 새로운 분류는 유럽, 미국 등 전통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세계 지도에서 대부분 위쪽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대비시켜 경제와 사회, 문화가 급속히 발전 중인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괄한다. 모든 분야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큰 흐름을 좌우하던 '글로벌 노스' 국가들이 점차 그 위세를 남쪽에서 빠르게 발전 중인 국가들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분류이기도 하다.

저자는 그 중에서도 전 세계 문화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대표적인 세 나라를 이 책에서 집중 조명한다. 바로 동인도에서 발달한 볼리우드 영화와 터키의 드라마, 그리고 한국의 대중가요다. 샤루크 칸을 비롯해 세계적인 배우를 무수히 탄생시킨 인도 영화와 43개국에서 2억 명이 넘는 시청자가 지켜본 터키 최대의 드라마 '위대한 세기(Magnificent Century)', 유튜브 조회수 10억회를 사상 최초로 넘긴 '강남 스타일'의 위력으로 드러난 K-POP의 놀라운 인기를 토대로, 저자는 서구 문화로 불렸던 미국 중심의 문화를 꺾은 이 새로운 바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추적한다. 현대적인 배경에 전통적인 요소를 대충 섞어서 지역의 특색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의 한 줄기를 만들어낸 이 세 국가의 독특한 문화가 현재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을 상세히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전망한다.

미국의 대중 문화가 모두에게 보편적인 매력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는 수십 년 동안 경쟁 상대 없이 문화로 뿌리를 내렸다. 아직 성장이 한창이던 시기에 풍족하고 화려한 미국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드라마와 음악, 영화는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영어를 할 줄 아는 엘리트층을 통해 확산되며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저렇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낯설지만 왠지 부럽고 행복해보이는 미국 문화 특유의 밝고 경쾌한 분위기 외에도 전 세계 65개국에 주둔한 미군 부대도 미국 문화를 세계 문화로 자리잡게 한 일등 공신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지금은 과거 60년을 통틀어 해외에 주둔한 미군의 숫자가 가장 적지만, 1960년대와 70년대만 해도 무려 100만 명이 넘는 미군이 세계 곳곳에서 생활했다. 코카콜라, 청바지, 로큰롤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널리 퍼진 것도 미군 부대를 통해서였다. 한국의 경우 1953년에 32만 명에 달하는 미군이 주둔했고 1930년대 한국은 할리우드 영화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더 잘 팔리는 시장이 되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이 노래와 연주를 마음껏 선보이며 끼를 발산할 수 있었던 곳이 대부분 미군 부대였고, 자연스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처음 싹이 튼 발상지가 되었다. 저자는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의해 방대하게 확산된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의 문화가 차츰 하향세로 접어들고 전통적인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일게 된 배경을 따라간다. 도시와 경제의 발전으로 훨씬 더 살 만 해진 사람들과 뿌리내릴 곳 없이 각박하고 낯선 도시로 무작정 생활 터전을 옮긴 바람에 정체성 위기에 빠진 도시민들도 소박한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고, 이미 생활 방식과 세상이 바뀐 그 때 미국 문화는 더 이상 과거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저자는 케이블 방송의 확산, 인구통계학적인 변화가 가져온 대대적인 문화적 욕구와 수요의 변화, 그리고 도시민의 심리학적 불안과 깊이 연관된 새로운 대중문화의 등장이 이 책에서 다루어지는 인도와 터키, 한국의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새로운 문화의 탄생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상세히 분석한다.
철옹성처럼 여겨지던 할리우드와 맥도날드, 청바지를 무너뜨린 글로벌 사우스의 신흥 주자들이 펼치고 있는 활약과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에 관한 의미 있는 분석도 함께 접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9장 (소제목 없음)
맺음말

<저자 소개>

파티마 부토(Fatima Bhutto)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태어나 시리아와 파키스탄에서 성장했다. 부친의 생애와 암살을 기록한 베스트셀러 회고록 『Songs of Blood and Sword』과 베일리 여성 소설상 후보에 오르고 프랑스에서 'Prix de la Romanciere'를 수상한 데뷔 소설 『The Shadow of the Crescent Moon』 등 총 다섯 편의 책을 썼다.

제목 : PORTABLE MAGIC
가제 : 책과 인류의 역사
저자 : Emma Smith
출판사: Pelican/The Penguin Press
발행일: 2020년 7월 원고 완성
분량 : 약 85,000 자
장르 : 역사

*** "깊이 있는 연구와 심층적인 비평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본보기" - 「옵저버」, 저자의 전작 『This is Shakespeare』에 대한 서평**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과거에는 일상의 한 부분이었던 많은 것들이 보다 여러 가지 기계나 기술을 활용한 다른 형태로 아예 바뀐 경우가 많다. 수화기가 본체에 줄로 연결된 전화기가 사라지고 버스를 탈 때 반드시 지폐나 동전을 내야 하는 일도 없다. 하지만 이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유물'로 사라지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종이에 인쇄된 책이다. 전자 책을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부러 서점을 찾아가고 짐스럽게 느껴질 법도 한 책을 기꺼이 가방 안에 넣고 다닌다. 오직 책으로만 얻을 수 있는 지식과 경험, 펼쳐서 읽는 것만으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는 마법 같은 힘을 생각하면 책을 '휴대할 수 있는 마법'이라고 표현한 스티븐 킹의 말에 충분히 공감하게 된다. 바로 이 표현을 책의 제목으로 삼아, 저자는 인쇄술이 등장하고 대중들이 책을 손에 쥐고 읽을 수 있게 된 시대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현대까지 무수히 다양한 내용과 형태, 의미가 담긴 책이 인류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왔는지 이야기한다.
위트와 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자이 따뜻한 시선, 동시에 날카롭고 명쾌한 분석과 재미 있는 이야기들이 역사와 함께 제시되는 이 책에서 저자는 8세기에 성 커스버트와 함께 묻혀 있었던 '린디스판 복음서'부터 19세기 러시아 제국으로 몰래 반입된 리투아니아어로 된 책들, 가톨릭에서 무려 3세기 이상 신도들은 읽지 말아야 한다고 엄명했던 '금서 목록', 저자가 아프리카 인이라는 사실만 확실할 뿐 이름은 '원주민'으로만 알려진 최초의 영어 소설 '사랑의 어리석음'과 최근 아이슬란드에서 발견된 한 시인의 중세 초기 작품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책들을 소개한다.
책에 담긴 내용은 그 책의 물리적인 형태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 저자는 각각의 책이 지닌 냄새와 무게, 표지 디자인, 출처가 모두 독서 경험과 큰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저자는 시간 순서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보다 인류가 책과 함께, 또는 책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춰 각 장을 구성했다. 1장에서는 종교와 영적 생활과 관련된 책을 살펴보며 책이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지던 시대의 일들을 소개하고 2장에서는 책을 눈으로만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책에 특정한 표시를 하는 행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

화해 왔는지 추적한다. 3장에서는 군사 행위와 이데올로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짚어보며 한낱 종이로 된 책이 그 어떤 무기보다도 무서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4장에서는 책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행위가 문화권마다 어떤 독특한 패턴을 나타내는지 그 흥미로운 특징을 살펴본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책이 활용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다. 마지막 5장의 제목은 자신의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셀피'라는 표현을 살짝 바꿔 책장(shelf)을 의미하는 '셸피'로 붙여졌다. 한 사람이 읽는 책,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이 그 사람의 드러나지 않는 특성과 비밀을 보여주는 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먼 옛날부터 이루어진 인류와 책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역사서이자 저자를 비롯해 책을 사랑한 사람들의 사연을 담은 러브스토리이기도 한 이 책을 통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분이 된 책의 가치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장. 종교와 책
2장. 책에 표시하는 것
3장. 무기가 된 책
4장. 책의 공유
5장. '셸피'

<저자 소개>

엠마 스미스(Emma Smith)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셰익스피어 문학을 연구해온 교수다. 저서로는 『Shakespeare's First Folio』와 1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된 저자의 팟캐스트 시리즈를 토대로 쓴 베스트셀러 『This is Shakespeare』(Penguin Press, April 2019) 등이 있다.

제목 : YOU ARE ENOUGH
가제 : 이대로도 괜찮아요
저자 : Panache Desai
출판사: HarperOne
발행일: 2020년 3월 3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경매를 통해 수십만 달러 규모로 출판 계약 체결**
*** 전 세계 1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Discovering Your Soul Signature』,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SuperSoul Sunday'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은 저자의 신작**
*** "저자는 영성을 현실적으로 설명한 인물. 우아하면서도 간단한 방식으로 세상에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다." - 디팍 초프라**

'어떻게 해야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이 물음에 소위 '영적 지도자'라 불리는 사람들이나 자칭 혹은 타칭 자기계발 전문가들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제시하지만 대부분 이들이 제안하는 해답은 비슷하다. 올바른 직업을 찾을 것, 잘 맞는 파트너를 찾을 것, 체중을 관리하고 외모를 가꿔서 자신감을 키울 것을 강조하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특정 제품을 써 보라는 권유까지 나올 때도 많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 가까이에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저자는 그 능력을 발휘하며 큰 성공을 거둔 후, 무엇이 인간의 삶을 정말로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전하려는 그 깨달음은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저런 조언들처럼 무언가를 사거나 고치고,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바로 이미 스스로의 현 상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비록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보일지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내면에서 발견되고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영혼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은 물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을 최대한 온전하게,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한다.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후 큰 호응을 얻었던 저자의 메시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고 대비하느라 현재를 낭비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함께 자신을 완벽한 '버전'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불필요한 의무감이나 압박에 시달리지 말 것을 호소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내가 아닌 지금 현재 함께 있는 나에게 집중해야만 하는 이유를 저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다. 때로는 일부러 꽁꽁 묻어 놓은 자신의 진짜 자아를 꺼내는 일이 고통스럽고 외면하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으며 그 과정이

생각보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무엇 하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서 영혼과의 유대를 찾아 평정심을 찾아야 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저자는 대부분의 현대인이 원치 않게 겪어야 하는 경험 때문에 망가지고 부서진 자아를 자신이 직접 돌보고 치유하는 것만이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한다. 영혼은 늘 완전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우리 곁에 머물고 있지만 피상적인 사건들, 신경 써야 할 무수한 일들에 온 정신이 쏠린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 저자는 영혼이 우리와 늘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온전히 찾을 수 있고,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자꾸만 바꾸려고 발버둥치는 노력도 멈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방식을 토대로 영혼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아와 조화를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꽉 막힌 듯한 답답한 감정은 모두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님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여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찾도록 도와주는 가르침이 제시된다.

<목차>

머리말: 사마디로의 초대
1장. 약속
2장. 가능성: 여러분 속에 숨은 부처의 마음을 발견하라
3장. 상황: 조건화된 삶
4장. 의식을 찾는 것: 가장 깊숙한 상처
5장. 나의 핵심을 이룬 자아를 찾아라
6장. 나의 이야기
7장. 떨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변화
8장. 변화의 주축
9장. 수용
10장. 내면의 유연성을 길러라
11장. '나는 당신이 원하는 역할을 연기해온 사람이었을 뿐'
(이하 생략, 총 17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파나쉬 데사이(Panache Desai)는 저술가이자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스스로 정한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온 강연자다.